

네가 복이 되리라.

말씀: 창12:1-3

요절: 창12:3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대홍수가 있던 지 400여년 만에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 버렸고, 저마다 우상을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텐의 언약(여자의 씨),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람 역시 그러했습니다(수24:2,15, 사51:1-2). 아브람은 당대의 지혜자나 권력자나 학식이 깊고 높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전1:26).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모형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아브람의 본을 따라 구원 받았습니다.

- 아브람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습니다. Me too.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 아브람이 주를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아브람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Me too. 의롭게 됨(righteousness).
- 아브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Me too. 의롭게 됨(justified)
- 아브람은 하나님의 벗(친구)이 되었습니다. Me too.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Me too.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 아브람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였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육체의 문자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Me too.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부활을 믿었다.
- 아브람은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먼 훗날 받게 될 상속 재산(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Me too.
-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Me too.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람이 신약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후손)임을 주장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중동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조상)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 역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아버지)라고 말합니다(롬4:16).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갈3:7). 둘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갈3:29).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의 모든 가족(창12:3), 모든 족속(행3:25), 모든 민족(갈3:8)이 복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1).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행7:2).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말하고, 친족은 아브람의 일가 친족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란 데라와 나홀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 형과 조카 롯 등 일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했고 거기 머무는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순례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아브람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분리’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 처음이 분리입니다. 아브람은 불러냄(called out)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인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separation, segregation. 주님은 분리주의자이시지 결코 연합주의자(통합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뭐든지 통합, 융합, 일치체를 외칩니다. 인종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등 뭐든지 통합을 말합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땅을 나누시고, 민족을 분리하십니다. *분리-비일치, 비동조, 비타협.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왔으면 주님이 명하신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순서는 언제나 come → go입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마11:28), “**나를 따라 오라**”, “**이리로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영적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마28:19). 이것은 사명이며, 의무이며, 일(사역)입니다. 주님의 “나오라”는 음성엔 순종했으면 “가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랐고 “가라”는 말씀에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히11:8).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은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란’에 머문 것은 절반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람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하란에 거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2). 주님은 아브람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족, 한 족속을 넘어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람의 후손들은 몇 대가 지나서 큰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만 해도 솔로몬 시대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4:20). 아내 사라가 불임이어서 자식 한 명 얻지 못한 때에 주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네게 복을 주어’란 말씀 역시 문자 그대로 아브람 당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창24:1).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당대에 모두 주께 복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주께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면 더욱 크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복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사51:2).

셋째,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영웅들의 이름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넷째, ‘네가 복이 되리라.’입니다. *복의 근원(개역, 표준새번역)이 아님. 아브람은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혼하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나 집 안이나 집 바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골치 덩어리, 눈에 가시, 걸림돌,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됩시다. 자식이 원수이고, 남편이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네가 복이 되리라”입니다. 누가 만약 아브람의 친구가 되면 그는 인생에서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들이 되고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복’(blessing)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식들에게 복이 되었고 먼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3:9).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하나님과 벗이 됨.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3:14). *약2:23 요15:14-15

본문에서 주의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신16:17;28:8).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네가 복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갈3:9,14).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 받습니다(갈3:29).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3).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기에, 아브라함이 누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최고의 특권과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나 노아도 이 정도의 권위를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을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실 할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란 한 개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이는 어떤 단체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유대교, 무슬림, 개톨릭, 그리스정교, 개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인들, 심지어 이단들에게 속한 사람들조차 아브람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창 12:3 말씀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됩니다. 창세기27:29을 보십시오. [만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네게 절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창27:29).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야곱(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은 주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면서 야곱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핏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을 저주하면 ‘다’(all) 저주를 받습니다.

민수기24:9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동일한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꿰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돌우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민24:9).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적 후손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은 민족차별을 하시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 국가라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개인, 민족, 국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반(反) 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하는 서방 유럽 국가들, 중동의 아랍 국가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비롯한 수많은 Anti-Semite들의 머리를 부수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T.V. 뉴스를 켜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UN에서는 연일 이스라엘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반(反) 이스라엘 동맹을 촉구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민족들 중에 번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는 현재까지 3류 국가

이하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를 보십시오. 지지 않는 태양이라 불리던 대영제국은 반(反)이스라엘 외교노선을 채택하면서 ‘지는 태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때 스페인은 세계 최강을 이루었지만 종교 재판을 통해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저물어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하층민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란 나라는 세계의 강국은 고사하고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의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사람들은 다양한 진단과 해답을 내 놓겠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반(反) 유대주의’가 그들의 쇠락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축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탐내어 이스라엘의 이들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British Israelites라는 단체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을 영국이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Spiritual Israelites를 주창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복과 약속을 은 자신들이 계승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복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강도짓을 합니다. 아랍권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본래 자신들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간교하게 속여 빼앗아 갔다고 주장합니다. 지성과 교양을 자랑하는 현대의 학자들, 교수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확산과 이스라엘의 고립이란 외교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해서 자기들에게 끌어 맞추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가 누구든지 저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히2:16).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행3:2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갈3:9,14).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엡1:3).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3). 이 구절은 오늘날 강단이나 신학교에서 크게 인용되는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너를”이란 말을 “네가”라고 바꾸어서 마치 어떤 사람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뿐 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계의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네가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라고 바꾸어서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한 글자(너를vs 네가) 바꿈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3).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란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방계 가족을 다 포함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듯이 이스마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듯이 ‘에서’ 역시 복을 받아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창39:5). 현재 미국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미국은 수많은 유대인들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속하는 한 복을 받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행3:25). *모든 가족-모든 족속. “네 씨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 뿐 아니라 장차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3:8). 하나님께서 창세기 12:3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은 온 땅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역, 인종, 언어에 구분 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땅의 온 가족, 족속,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말씀: 창12:4-9

요절: 창12:5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과 복을 받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례의 길은 평탄한 과정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 나홀은 하란에 남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이런 저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동일합니다. 구원 받은 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평탄대호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났다는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례자입니다. 가인은 방랑자였고 도망자였지 결코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녹, 노아, 셈 등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딘가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타국인이요, 순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모두 '히브리인'이라 불리는데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 '강을 건너온 사람, 순례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어딘가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순례자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히 11:13). 야곱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순례자라고 했고 그 자신 역시 순례자임을 밝혔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 길의 햇수의 날이 백삼십 년이입니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창47:9). 야곱 자신이 이리 저리 옮겨 다닌 것도 순례이지만 인생 자체가 순례란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은 순례의 나날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 삶의 터전이 아닌 단지 '순례의 땅'일 이었을 뿐입니다.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출6:4).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이 '순례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순례를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례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순례는 끝났지만 영적 순례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은 순례의 땅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순례자입니다. 공간적, 지리적 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순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벧전2:11). 우리의 육신의 몸은 우리카 혼의 거처이며 집입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고로 우리의 전 생애는 순례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시119:54)라고 했습니다. 순례의 길에는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례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영적 교훈과 배움, 경고를 얻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4).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잠시 중단했던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했고(창17:23),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창22:3)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쳤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 모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이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나이는 은퇴와 평안한 노후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이 나이는 한참 정정한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85세를 살았으니 75세의 나이는 인생의 1/3을 약간 더 지난 젊은 나이였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란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롯은 나홀을 따라 하란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순례의 길에 나섰습니다. 성경에는 중요 인물들 곁에 항상 짝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등과 같이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짝에 속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순례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약성경은 “의로운 롯”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벧후2:7-8). 아브라함이 영적인 크리스천의 모형이라면 롯은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께 말씀을 받은 대언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창20:7).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운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은 몸으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으나 영적으로 함께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동화되었고 친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순례의 길에 동행하는 이들은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방해물이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복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은 항상 골칫덩이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 함께 따라 나왔던 ‘섞인 무리들(출12:38)’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순례의 길에 엄청난 trouble maker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서로 갈라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분리는 타락과 혼란, 무질서와 분쟁을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남편 아브라함보다 열 살이 적은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당시 사라는 충분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래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5).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뿐 아니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재산과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얻은 혼들이란 ‘종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재산과 종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목축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했을 것임은 성경의 몇 장을 넘기기도 전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난 것이지 결코 선교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말씀을 가르치려 간 온 것이 아니었듯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은과 금, 의복 등을 취해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주민들을 멸하고 그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모두 몰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중동 분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5).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착해 살던 땅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와 나그네로 살았고 자기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보여 주신 땅이긴 했지만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이삭 역시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야곱이나 그의 열 두 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4대째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곧 바로 이곳을 향해 출발했지만 믿음이 없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번성했다가 솔로몬이 죽자 남북 왕국이 갈라져 앗시리아와 바빌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후 일부 주민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살았지만 국가라 할 만한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주변 열강들의 침략으로 영욕의 역사를 거듭하다 주후 70년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여 이 땅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웠지만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법적 지위 등으로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가니라.(창12:5)”라는 이 한 마디는 이스라엘의 영토와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6).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300 마일의 거리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의 산지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웠습니다 (수24:1,25).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란 노아의 예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종이 아닌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지만 이들은 거주의 경계를 벗어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인, 르파인, 수스인, 엠인(신2:10-20 창6:4) 등은 모두 거인족의 후예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미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주인 행세를 했고 아브라함은 단지 손님이요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 대장을 앞세워(수5:14)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방인, 이교도가 아닌 거인족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7).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7).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보여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은 “네 씨”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던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갈3:16).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셨는데 ‘네 씨’는 이삭이나 야곱,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밭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행7:5). 아브라함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 불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7)라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치지 못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한 채 일부 부족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가시요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되었습니다(민33:55).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수23:13).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세겜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7). 아벨로부터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식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고전11:25-28.

8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벧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8).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리 저리 옮겨 다녔

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겔에서 떠나 벧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더라고 말하는데 약 18일 정도 이동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고 집을 짓는 대신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는 여호수아 7,8장에 나오는 전투 장소로 ‘무더기, 폐허’란 뜻입니다. 벧엘로부터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8)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를 경배하는 사람임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이 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음으로 후대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주께 경배하는 모델이 됩니다(창21:33).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잘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산당’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아라랏 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 아브라함이 벧엘에 있는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 사무엘이 산당에서 주를 경배한 일 등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주님을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는 산당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왕상3:2). 솔로몬이 일천 개의 번제 헌물을 드린 곳도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를 드리니라.](왕상3:3-4). 성전이 건축된 후에 산당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선호했는데 그 때부터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유대의 위대한 왕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사 왕은 유대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왕상15:1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주를 찾고 주를 두려워 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왕상22:43).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왕하12:3;14:4;15:4,35). 성경은 반복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왕하16:4;17:9,11).

9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9). 아브라함은 벧엘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쪽이면 이집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16절까지는 ‘주님’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란 표현이 나오다 갑자기 푹 끊어진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오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가 정한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은 것입니다. 성경이 ‘남쪽으로’라고 말한 것은 ‘이집트를 향해’란 말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험입니다.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보여 주신 땅으로 왔는데 계속 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부족 국가들의 동맹체 정도를 이루었을 당시 이집트는 이미 국가적 체계, 왕정 체제를 잘 갖춘 나라였습니다. 학문이나 문명, 경제적 문제 등에서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향해 계속 내려갔고 결국 이집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순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 하란에서 순례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 - 순종.
2.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 주님의 인도하심.
3. 가나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 - 경배.
4.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갔다. - 잘못된 방향.

내 누이라 하라.

말씀: 창12:10-20

요절: 창12:13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보호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쪽은 순례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방향을 틀었을 때 그는 결국 소돔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방향을 잡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마2:15).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집트(세상)에 살다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요, 쇠 용광로입니다(신4:20). 성경에는 본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의 불행,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은 엘리멜렉입니다. 롯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롯1:1-2).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었고 그 후에도 그의 아내 나오미는 거기서 두 아들들을 모두 장가보내냈고 정착했지만 결국 자신과 아들들도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뒤에 남겨진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인 롯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거처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하는지 뜻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삼아 그리로 향하면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로 향하면 바른 방향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정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4-5).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크리스천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간에 거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정착해서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in Christ)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인 성도들에게도 머물 곳이 있고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2:7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엡3:17),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골2:7).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여기가 우리의 출생지요, 생명의 터전이며, 삶의 거처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이집트로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열강이며, 양식이 풍부했고,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 선진국이었던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보다는 이집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사55:8). 아브라함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꿈을 펼치기 위해 이집트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10). 남쪽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갈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 역병, 전쟁은 성경의 3대 재앙입니다. 주님은 말세의 4대 표적 재앙으로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마24:7). 우리는 이전 어떤 세대보다 잦은 전쟁과 곳곳의 기근과 처음 들어 보는 각종 전염병과 수시로 터지는 큰 지진을 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크리스천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어렵지 않게 알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재난들이 마지막 날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눅21:11). *계6:8;18:8. 큰 지진,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은 모두 시대의 징조들이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임을 알려 주는 표적들(signs)입니다.

어느 시대나 기근, 전쟁, 역병 등은 사람들을 이동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이민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겪는 기근은 그로 하여금 이집트로 떠나 거기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지역은 물론이고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 사람들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해 중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남미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의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이 있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기근의 해결은 삶의 거주지를 정하는 중요 기준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 살인은 물론이고 자식도 삶아 먹게 되는 것이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고 말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비롯해서 가족과 종들을 모두 먹여 살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집트로의 이주 결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양식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

엘은 세계의 곡창 지대인 이집트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굶주린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뛰어나가려는 욕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육체의 빵이 있었지만 영적 기근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모스8:11. 지금 서구 유럽, 남미, 중동, 중국을 비롯한 신흥 산업국들에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거기에는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아모서 8:11-1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리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음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암8:11-13).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이 크고 심한 시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11). 막상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당시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으로 누가 보아도 그 미모에 반할만 한 수준이었던지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 남편을 죽여 버리는 일은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난하지만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살인, 폭력, 도둑질, 강탈, 사기, 전쟁’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암살론은 왕위를 갖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았을 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임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누구나 쉽게 이 정도는 짐작하고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겠다는 결심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아내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직감한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찬 말입니다.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자랑거리요 기쁨인 것이 때로 자신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아한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자신의 뿔 때문에 걸려 죽는 이야기는 사람에게도 때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강점, 자랑거리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거나 남들의 표적이 되어 고 죽는 일도 허다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정신 병원에 수감되고 죽는 일은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인물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의 욕정의 대상이 되고, 부랑아들의 표적이 되는 일은 허다한 일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고후11:30)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후12:5b).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고후12:9). 여러분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키, 못난 외모는 불평, 불만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

은 살려 두리니](12).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코카서스 인종의 백인은 아니었지만 셈 족의 흰 색 피부를 가진 여자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미칠만한 미모의 소유자였던지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뿐 아니라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은 왜 들어가 머물고 자 하는 것입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빵의 주림, 배고픔의 문제는 사람에게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도록 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바로 기근(빈곤, 경제, 일자리, 실업, 빚 등)입니다. *경제적 문제. 빈곤에 허덕여 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기진 배를 잡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 두리니”(12)란 말을 통해 이집트인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 두는 악한 풍습이 있었던 듯합니다(출1:16).

13절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13).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요 해결책입니다. 세상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속임수가 대부분입니다. 마귀의 지혜의 핵심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 역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말하라.”(13).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이라고 하면 죽고 빼앗기는 것이고, 오빠라고 말하면 죽임은 당하지 않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창20:12). 또한 그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누이이며 아내인데 한 가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거짓말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김으로 자신이 얻게 될 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13).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죽게 되지만 사라의 오빠 아브라함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건대”(pray)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pray(기도)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말이 “기도하건대”란 말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아내 사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을 들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마6:6). 주께 기도합니다(마9:38).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눅6:12). 기도의 대상은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삼위일체-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요16:26), 성령 안에서(엡6:18).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로 인해 자신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잘 되는 방법을 이미 강구해 두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주었습니다. 사라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갈 때 남편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잘 대해 줄 것이란 아브라함의 말에 충분히 공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육체요, 풀에 불과할 뿐이며 참으로 헛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시39:5).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13). *내 혼(my soul). 아브라함은 몸과 혼을 동일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혼과 몸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된 예가 많습니다. 롯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이까?) 하매](창19:20). 구약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을 “내 혼이 죽는다”라고 했고, 몸이 사는 것을 “내 혼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몸과 혼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몸과 혼이 구분됩니다.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의 죽음’과 ‘혼의 죽음’을 구분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3분법적 구분이 은 구약 성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 할례를 통해 죄의 몸을 벗어 버린 사람들입니다(골2:11). 신약성도에게는 영, 혼, 몸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자기 한 목숨을 내놓는 대신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육신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요일3:16). 크리스천은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복음, 말씀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대신 자기 아내를 내어 놓았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14).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를 마치 슈퍼스타나 강림한 여신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란 말은 오늘날 인물 좋은 미녀들, 영화배우, 탤런트 등을 보려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를 보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오늘날 미인 대회 우승자나 미녀 스타들이 받는 것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 아니라 매니저를 자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숨졌습니다. 사라는 이집트에서 볼 수 없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이집트 입성에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화제를 몰고 다녔던 터라 그 소식은 곧 바로 파라오의 통치자들과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으로 전파한 것도 아닌데 사라의 입국은 이집트 공항, 세관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예상하고 우려했던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15). 이집트의 민중들 뿐 아니라 통치자들도 사라를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파라오 앞에서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파라오에게 그녀를 취하라는 강력한 추천입니다. 사라는 이집트 입국장에서부터 화제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짐작하고 우려했던 그대로 아내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란 사실은 이집트에서 1급 비밀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란 사실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국민들을

기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희대의 스캔들이 될 만한 것이며, 아브라함을 사지(死地)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유부녀 사라는 마치 남편이 없는 처녀처럼 파라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웃고 말 일이지만 당시 아브라함, 사라, 롯 등에게 이 일은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16). 파라오는 아브라함이 이미 짐작한 대로 ‘사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했습니다. 미모의 아내를 준 오빠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 것입니다. 파라오가 사랑의 예물로 준 대가는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가진 재물에다 파라오가 준 재물들로 인해 거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내를 팔아 얻은 재물은 상당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창13:2). 파라오가 아내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는 당시 풍습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 중 가장 비싼 값을 치른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엡5:23,25).

1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시매](17).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3:15에 나오는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창12:7)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혼잡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지 않으십니다. 씨에 관련된 모든 일에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을 때 주님은 직접 큰 역병으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심판 등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자신 뿐 아니라 자기 가족, 친족, 주변에 재앙을 초래합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아무런 관련 없는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때로 우리 주변에 큰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잘못된 분명히 파라오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죄,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재앙, 질병, 사고 등을 겪을 때 그것이 꼭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막아 주기 위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 매우 많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브라함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18,19절입니다.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하며](18,19). 파라오의 책망입니다. 이방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거짓을 엄히 책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는 교회,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

다(요8:34). 세상은 크리스천들의 거짓, 위선, 가식, 말 뿐인 종교적인 모습을 책망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맛을 잃을 때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순수함을 잃을 때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는 파라오의 말은 아브라함을 이집트로부터 추방하는 ‘추방 명령’입니다.

20절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20).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신속하게 내보냈습니다. 훗날 파라오는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이집트에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신속하게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타국(타지)에 거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역사적 교훈은 성경에서 반복됩니다(전1:9).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말씀: 창13:1-13

요절: 창13:9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고 말한 이 장면은 *교회의 분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에서 롯과 동행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가는 길에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일은 보통 끈끈한 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친인척의 관계일 뿐 아니라 순례의 동반자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였습니다. 아브람은 “우리는 형제라”(창13:8)고 말했을 정도로 이들은 혈연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형제였습니다. 대언자 아모스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암3:3)라고 말한 대로 이들은 한 믿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롯은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 믿음이 없는 자, 아브라함을 떠난 배신자, 배교자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에서부터 함께 동행했고, 소돔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의인(벤허2:7-8)이란 점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어디나 따라 갔습니다. 이는 마치 모압 여인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롯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롯1:16-17). 롯이 나오미에게 밀착했듯이 하란에서부터 롯은 아브라함에게 밀착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람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대했고, 아버지가 없는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형제요, 아들이요, 친구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롯을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사건이 있고, 형제보다 가깝던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사건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1).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으로 파라오의 손에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나왔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 죄, 실수를 모두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 순서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롯과...” 이런 순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롯은 아브라함과 멀어졌습니다. 롯이 이집트에서 그냥 남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같이 올라 온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엄청난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한 롯이라면 그 재물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은 함께 해도 영광은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권력과 재물, 지위는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소유를 가지고 나올 때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2).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들어갔다 거부(巨富)가 되어 나왔습니다. 본래 있던 재산에다 파라오가 준 것들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 모든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롯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거짓,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축과 은과 금을 얻었는지 다 압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풍부하였더라.”입니다. 롯은 이집트에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축, 은과 금이 많으니 함께 나누자, 우리의 공동 소유라고 하지 않는 이상 롯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위험을 감수했을 뿐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가축과 은과 금을 자기와 함께 한 롯과 나누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부, 재물, 권력, 지위, 권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으로 구속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벧전1:18). 베드로는 은과 금을 바라는 앓은뱅이 거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사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3:6). 발람은 은과 금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은과 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신17:17). 금과 은은 음녀 바빌론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계18:12). 우리는 은과 금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딤후6:10). 그러나 오늘날 기복주의, 성공 신학에 물든 기독교는 ‘돈이 없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돈은 곧 신이요, 축복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두고 “목숨을 건 거짓말, 생명의 위험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했다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벧엘에 이르러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라.](3-4).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으로 훗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창12:8)인 벧엘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대로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5-6절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5-6).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주머니를 찬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 각자의 종을 가진 사유 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처음부터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각 집에 모두 분배하게 하신 것은 사유재산제를 법적으로 확립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정치 제도는 신정, 왕정입니다. 공화정,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란 말은 그곳에 충분한 목초지, 초원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소와 양을 먹이려면 충분한 풀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런 것이 부족했던 지라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동반자는 경쟁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목초지와 우물을 차지하려는 경쟁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들의 사이는 험악해져 갑니다. 돈이 들어오면 형제간에도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7절입니다.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7).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물과 풀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총을 겨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다툼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다툼은 세상에 비난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선한 간증, 좋은 열매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형제 사이며 또한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약3:16). 표면적인 이유는 물과 초원이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약4:1).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다툼과 갈등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분쟁, 다툼의 대부분은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형제들 간에 서로 고소하며 법정에 가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고전6:6-8). 불신자들 앞에서 형제들이 다투는 대신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앞에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

틈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8). 아브라함이 롯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라”(8). 혈통 상으로도 영적으로도 형제입니다(창14:14). 아브라함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며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분쟁을 종식하지는 호소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종교 간의 분쟁을 없애자는 구호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있기에 저마다 합리적 타협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며 다툽니다. 집에 가면 가족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저런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고자 혼자 조용히 지내도 내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골방에 홀로 있다고 해서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화평, 평강)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 화평을 얻는 방법. 심리적 치료가 아닌 진정한 화평(평강)을 얻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이 불안,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롬14:17)이기 때문입니다.

- 주님이 평강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엡2:14). *롬5:1.
-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
-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 평안을 누리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16:33).
-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라.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26:3).
- 영적으로 생각하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6). 건전한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9). 아브라함은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다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형제와의 동거함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 안에서 함께 한 동역자였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로 크게 싸운 뒤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분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다툼과 분쟁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롯이 오른쪽으로 떠나면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좌파가 되느냐? 우파가 되느냐?’는 오직 롯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을** 롯과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사상, 이념과 무관하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대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다툼으로 갈라섰습니다.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도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10). 롯의 선택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 관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참으로 기회의 땅이요, 잠재성이 무궁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고,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신13:10). 롯은 전에 아브라함과 이집트에 내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땅은 세계의 곡창지였습니다. 요르단 평야에 대한 롯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는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롯은 자신이 들은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 대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고, 보기에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잠14:12). *잠16:25. 우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주의 판단(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 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신12:8). 사사 시대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17:6). *삿21:25.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최선이요, 최상인 줄로 압니다(대상13:4).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옳으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2:15).

11,12절입니다.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람은 가난한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11-12). 롯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로써 하란에서부터 시작된 동행의 길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롯에게는 새로운 곳을 향하는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본 것을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롯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의 지혜와, 처신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롯의 꿈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목축업을 했던 롯은 이제 도시들에 거하는 ‘도시민’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비주류가 아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삶의 터전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마침내 소돔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창19:1). 롯은 이제 주류 사회의 지도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는 말은 성공을 향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롯의 첫 걸음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13). 롯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했던 소돔은 양식이 풍부하고, 각종 오락 산업과 문화, 유흥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에스겔16:49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겔16:49). 소돔은 1등 도시, 1등 시민이란 교만이 있습니다. 소돔은 당시 그 어떤 도시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도시였습니다. 게으름이 많다는 것은 여가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만하는 다른 도시 사람들과 달리 소돔은 주 5일 근무제에 각종 휴가, 공휴일 등이 보장된 선진 복지 도시였던지라 연극, 영화, 각종 스포츠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게으름이 많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덕분에 소돔은 자유연애, 동성애 등의 죄악이 성적 자유, 보편적 인권 등으로 당당히 실행되었

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13)는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소돔을 소개하는 어떤 관광 책자이나 웹 사이트에도 절대 언급되지 않는 말입니다. 소돔은 아름다운 도시, 번영하는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 호텔과 카지노와 고급 술집이 많은 도시, 도시의 여왕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로 소개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곳 사람들이 사악하며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욱 영적인 부흥을 갈구하는 대신 물질적인 부와 세속적인 성공과 높은 지위를 꿈꾸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롯은 소돔이 죄악된 도시이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란 사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에 선교를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